

논문 스터디 동아리 활동,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가요?

고1 딸이 코로나19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줄어들었다며 아쉬워합니다.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생명과학 분야 논문을 읽고 토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 박성현(48·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2021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을 탐구하는 동아리 활동과 논문을 활용한 교육 활동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하에 논문을 읽었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부에는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경기 창현고 윤일식 교사는 “동아리 활동 계획서에 논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동아리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논문이 아니어도 같은 주제를 다룬 책으로 탐구 활동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

MORE TIP

논문 관련 활동과 기재를 금하고 있지만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소논문(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탐구>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입니다. 이 과목들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대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할 때는 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을 제외하게 돼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2021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 중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기재 요령)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가 무엇인가요?

최근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요. 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탈락했더라고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무엇을 평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은 향후 3년간 일반 재정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이번 결과가 대학 재정이 부실하거나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_ 이순미(48·서울 광진구 구의동)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대학의 기본 역량을 평가해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는 산업 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및 학사 구조 개편,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선정되면 2022~2024년까지 올해 기준 대학은 연간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국내 대학들은 등록금만으로 재정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했던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로 바뀐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에 재정을 지원해주고 대학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다만, 정량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대학이 정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진단평가에서 탈락했다고 부실 대학으로 낙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기본역량진단센터는 “최근 3년간 대학 발전 계획 성과 4점, 교육 여건 20점, 대학 운영의 책무성 9점,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9점, 학생 지원 13점, 교육 성과 25점 등 6개 항목의 정량 지표와 정성적 정량 지표의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힙니다. @

MORE TIP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 선정된 대학은 지원금을 받는 대신 정원 감축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소장은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일반 재정 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제한이 있지만, 모든 국가 지원 사업의 제한을 받는 건 아니다. 실제 인하대의 경우 여러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특수목적 재정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과를 대입과 연결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전합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